

# 『토지』에 나타난 ‘능동적 공동체’와 『혼불』에 나타난 ‘근원적인 나’

이덕화

평택대학교 명예교수

목차

- 1 스피노자의 코나투스과 ‘생명의식’, ‘혼불의식’
- 2 『토지』의 『혼불』의 미적 태도
- 3 『토지』와 『혼불』 두 작품의 서사 전개 과정
- 4 ‘나’의 근원 찾기와 능동적 공동체로서의 민족
- 5 결론

이 논문은 8월7일 [토지]학회와 [국어국문학회] 연합합동 학회에서 기조 발제문임.

스피노자에 의하면 인간은 현실적으로 실존하게 되는 순간 코나투스적 존재라고 한다. 코나투스는 기쁨이나 슬픔이라는 촉발 장치를 필요로 한다.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에 의한 기쁨과 슬픔의 상태는 『토지』와 『혼불』의 생명력이 진행되는 방향과 일치한다. 『토지』는 기쁨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혼불』은 슬픔의 방향으로 진행한다.

스피노자는 능동의 경우에는 오직 기쁨의 감정과 그에 따른 능동적인 욕망만 존재한다고 했다. 기쁨에서 생겨난 욕망은 코나투스이기는 하지만 외부의 원인에 의해 증가된 완전성으로 인해 배가 된 욕망이라는 것이다. 서희가 간도에서 자신의 주체적인 아이디어로 길상이와 일체가 되어 재산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혀를 두를 정도로 용의주도하다. 자신의 피붙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서희가 평사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간도를 떠날 때는 홀로 선 자신의 위기를 그들과 함께 극복해보겠다는 강한 의지 때문이다. 즉 처음부터 서희는 최참판댁의 영광을 되찾고 자신의 실존을 보존하기 위해 다른 이웃들과 함께 연대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서희라는 홀로 선 개인이 아니라 함께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한 김훈장이나 용이네, 공노인 등을 비롯한 이웃들과의 조화로운 삶은 서희가 최참판댁을 지켜야겠다는 최참판댁 가문 이상의 민족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염원 때문이다.

이에 비해 『혼불』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 강모와 효원의 결혼, 청암부인의 죽음, 강모의 만주로의 도피, 강모와 강실이와의 근친상간, 춘복이의 강실이의 강간, 강실이의 피신, 고리 배미의 천민인 백단이와 만동이 아버지의 뼈를 청암부인의 묘에 투장하는 사건 등 중간 중간 끼어드는 풍속이나 신화 이야기, 액막이 연 이야기, 백제 이야기, 만주 이민 역사 등, 대부분의 이야기는 도도한 작가 정신에 의해서 인물들의 삶을 규정하는 객관적 현실과 유리된 채 상징, 언어의 반복, 시각적 이미지인, 자연 제재물이나 사물에의 감정 이입, 모티브의 반복과 불연속적 사건들의 병치 등 ‘순간의 상태성’을 표현하는 수동적 정념에 휩싸인 인물만을 그려내고 있다. 작가 의식에 의해서 『혼불』이 전달하려는 것은 서사적 성격을 초월한 영원의 본질적 고양을 경험한다는 것은 오직 작가의 관념으로써의 발현이지 작품 속에서는 수동적이고 맹목적인 인물로만 드러날 뿐이다.

## 1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와 ‘생명의식’, ‘혼불의식’

『토지』나 『혼불』에 대한 분석 방법은 다양할 것이다. 또 두 작품의 비교분석 또한 다양하겠지만, 이번 이 논문에서는 두 전체 작품의 주요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서희’와 ‘강실’의 욕망을 스피노자의 개념인 코나투스에 의해서 어떻게 작품이 전개되는가를 보려고 한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모든 감정은 인간의 현실적 본성 즉 코나투스라고 본다. 인간의 감정이 이 본성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본성을 니체는 ‘권력의지’로 들뢰즈는 ‘기관없는 열차’로 각기 명명, 지칭은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에 파생된 개념들이다.<sup>1</sup>

질 들뢰즈는 스피노자의 성서 해석 방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스피노자 사상의 새로운 면들을 들춰내주고 있다. 네그리의 다중(多衆, multitude)은 『신학-정치론』에서는 말하는 ‘종교적 자유’, 집단적 개인으로서의 국가 사상에서 영향 받았다고 평가한다. 스피노자는 『에티카』와 『신학-정치론』에서 성서를 정면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신론과 인간론을 주장하고, 동시에 자유 민주주의의 근본 사상을 제시했다. 『에티카』에서 인간 한 명 한 명의 감정을 해석했다면, 『신학-정치론』에서는 종교와 국가 정치의 시각에서 공동체 속의 인간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스피노자와 니체는 인간의 이성을 억압하는 종교사기업에 대항하여, 나름의 성경 해석을 통해 성숙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이후 알랭 바디우의 『사도 바울』도 이러한 시도를 잇고 있다. 종교와 정치 권력의 카르텔에 짓눌린 인간을 해방시키려 했던 스피노자의 시도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칸트, 헤겔, 마르크스, 니체 등에게 영향을 끼친 스피노자는 근대로 향한 교두보 역할을 했다.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강자든 약자든 현자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그가

---

1 이수영, 「수동적 정념의 코나투스와 감정의 법칙」, 『스피노자 에티카』, 오월의 봄, 2017, 220-245쪽.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라면 그 누구든 자신의 코나투스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마련인데, 이런 코나투스는 모두 인간이면 누구나 동등하게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니체식으로 표현하자면 강자도 최선의 권력의지를 실현하려 노력하고 약자도 최선을 다해 자신의 권력의지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토지』의 ‘생명사상’, 『혼불』의 ‘혼불의식’이 바로 인간의 코나투스나 권력의지와 깊은 관계에 있다. 『토지』의 ‘생명사상’과 『혼불』의 ‘혼불’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고유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영성’ 혹은 ‘정신의 정수’ 혹은 ‘핵’이라는 점에서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나 니체의 권력의지와 통한다.

박경리는 인간이 살아간다는 자체가 한(恨)을 쌓는 일이라고 했다. 그래서 생명사상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연민으로 나타난다. 박경리의 ‘생명사상’의 근간이 되는 유기체적 존재론과도 관련이 있다. 즉 모든 생명체는 ‘생명의 집합체이며 우주’라는 개념 속에는 모든 생명체는 우주 속의 메카니즘 속에서 움직이며 서로 상호공존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생명체 하나하나가 다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각기 그 개체에 대한 존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나’라는 개체가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함과 동시에 타자도 함께 존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sup>2</sup>

최명희는 인간이 각기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신이 ‘혼불’이라면, 한 인간에 있어서나 국가나 민족에 있어서도 그 ‘혼불’이 활활 불타오를 때에야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혼불’이 존재를 존재답게 하는 힘, 생명과 영혼을 그답게 하는 정신의 정수, 핵을 의미한다면 결국 인간이 인간이고자 하는 인간다움, 박경리의 인간의 존엄성과 다를 바 없다.

스피노자에게 실재하는 것, 즉 이 현실 속에서 그 실존을 부여받은 모든 생명체는 나름대로 완전하다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피노자의 철학 속에서는 그 완전성과 실재성을 획득한다는 것이다. 노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실재가 가지고 있는 완전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삶이라는 것

2 이덕화, 「『토지』의 ‘생명사상’과 『혼불』의 ‘혼불’의식」, 『박경리와 최명희, 두 여성적 글쓰기』, 태학사, 2000, 50-59쪽.

이다. 『토지』의 생명사상이나 『혼불』의 ‘혼불’의식에서 이야기하는 개체의 존엄성이 활활 불타올라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혼신을 지키려는 욕망이 자기 자신의 근본 즉 본성을 찾아가려는 행위이듯이 이것이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이고 니체의 ‘권력의지’이다.

스피노자는 코나투스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신체와 결합해 자율적인 실천이 이루어질 때 생명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관념이 생긴다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모든 사물의 본성이면서 실존하는 모든 사물의 현실적 본질인 코나투스는 여러 외적 원인에 의해 유지되기도 하고 위협당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현실적으로 실존하게 되는 순간 코나투스적 존재라고 한다. 코나투스는 기쁨이나 슬픔이라는 촉발 장치를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본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기쁨/슬픔이 아니라 코나투스다. 기쁨과 슬픔은 외부 사물이 우리에게 끼친 효과이지만 코나투스는 그런 효과 속에서 자신의 실존을 유지하려는 현실적 발현이라는 것이다.<sup>3</sup>

실존을 유지하게 해 주는 것, 즉 우리를 구성하는 다양한 외연적인 부분들이 형성하는 운동-정지의 비율을 잘 유지하게 해 주는 것들은 좋은 것이라는 것이다. 즉 감정은 우리의 신체와 결합했을 때 좋고 나쁨이 발생한다. 좋은 것과 우리의 신체가 합성되었을 때 우리의 완전성 즉 ‘생명사상’이나 ‘혼불’에서 말하는 생명력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감미로운 음악이나 맛있는 음식, 편안한 주거 공간, 깊은 통찰력을 담은 책 같은 것들은 생명력을 활발하게 하고 능동적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나쁜 것들을 합성했을 때 우리에게 파괴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나쁨이며 도덕적으로 악이며 그것은 우리를 위축시키며 수동적이게 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토지』의 생명사상이나 『혼불』의 ‘혼불의식’이 인간의 코나투스를 드러내는 기쁨이라든가 혹은 하강 구도를 통해서 슬픔으로 귀착되는 두 작품을 드러내는 장치라든가 세계관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두 작가의 작품의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분석해보려 한다.

---

3 이수영, 「정신과 신체의 본성에 대하여」, 앞의 책, 240-255쪽.

## 2 『토지』의 『혼불』의 미적 태도

두 작품은 다 10편 이상 되는 장편소설이다. 그럼에도 왜 『혼불』에서 서정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가를 주제의 전개 방식, 소설적 장치를 통해 한번 보려고 한다.

문학적 형성화는 ‘이상’과의 연관 속에서 ‘현실’적 삶을 그리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주체와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과 ‘자기 인식’을 드러낸다. 서사문학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전면에 놓이며 이상에 대한 자기 인식은 배경으로 밀려난다. 반면 서정문학은 자기 인식이 전면에 부각되고 인식은 뒤로 물러난다.

대부분의 서사문학에서의 구체적 현실은 사회 역사적 현실이다. 그러나 서정 소설에서는 자연적 환경이 사회적 환경을 대신한다. 서정 소설은 서정시의 주요영역인 ‘자연’을 끌어들이는 점에서 독특한 형식을 구성한다. 자연 속에서의 인간의 경험은 사회적 경험과는 달리 주객 합일을 지향한다. 일반적 서사문학에서의 근대소설은 주체가 타락한 사회와의 갈등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술 일반을 가치지향적 활동으로 보는 까닭은, 가치 지향의 문제는 예술이 가지고 있는 독자성과 작가의식이 작품의 형식을 통하여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드러났느냐, 아니면 작가의식만이 작품을 지배했느냐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작품이 예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독자성과 작가의식이 유기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는 반영하는 현실이 어떤 객관적 구조로 되어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될 것이며, 작가의식이 예술이 가지고 있는 독자성과 유기적 결합을 상실한 채 작가의식을 드러낼 때는 객관적 구조가 어떤 가치적 존재인가를 밝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sup>4</sup>

『토지』에서 최참판댁의 몰락과 흥망은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역사적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서 매개되어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전개된다. 1,2부의 인물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의해서 한을 만들기도 하지만 정치적 격변이라는 사회적 상황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기도 한다. 3,4,5부에 와서는 서희라는 인물에

4 M.S 까간, 진중권 역, 『미학강의 1』, 버리, 1989, 200-250쪽.

의해서 최참판댁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서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 계층이 만들어내는 인간사가 펼쳐진다. 결국 서희가 길상이와 결혼함으로써 민족의 독립으로 서사의 방향이 전환된다. 그에 따라 서희는 간도에서 진주로 오고 독립군으로 남은 길상의 뒷바라지와 독립군 가족의 뒷바라지를 장연학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돌보는 역할을 함으로써 능동적 공동체로의 민족 세우기로 진입한다.

『토지』의 서희가 평사리에서 간도, 간도에서 진주까지 너무나 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다양하게 얽히고 풀리는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 간의 관계를 형성한다. 일본 제국주의 초기부터 일제 강압적인 민족 억압의 양상, 독립 운동가들의 다양한 분파, 일제하에 새롭게 등장한 신지식인군과 신여자들의 다양한 모습, 초기 근대의 자본주의화에 따른 상업가들의 다양한 모습 등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 일상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하의 조선 민족의 사회상과 인간들의 다양한 형태들을 인물들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보여준다. 『토지』라는 거대한 우주 속에 민족이라는 생명체가 어떠한 형태로 움직이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를 400명 가까운 인물들의 당시의 구체적인 일상과 인물들의 의식, 빚어내는 사건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거대한 생명체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이 바로 『토지』의 서사의 세계이다.

개체는 저마다 소우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벌레 한 마리도 삶의 법칙에 의해 살아갑니다. 그 벌레의 삶 자체는 거대한 코끼리와 차이가 없습니다. 하늘의 별과도 차이가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미세하다 해서 그 벌레가 법칙 밖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총체로서의 개체이며 총체는 개체로서 이루어지고 고리사슬에 얽어진 존재일 것입니다.<sup>5</sup>

위의 인용문처럼 박경리는 아무리 개인이라고 해도 인간의 삶은 우주의 삶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개인은 우주와 같아서 아무리 미물 같은 존재라 해도 그 존재는 우주 전체의 시스템과 다름이 없는 유기적인 개체이기 때문에

5 박경리, 「인간탐구」, 『문학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 현대문학사, 1955, 281-282쪽.

중요하다는 것이다. 『토지』는 거대한 우주선과 같이 민족이라는 공동운명체를 태우고 시간의 흐름의 부침을 거둬들이며 각자 개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운행하면서 또 전체 흐름을 따르는 능동적 공동체라는 것이다.

『혼불』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 강모와 효원의 결혼, 청암부인의 죽음, 강모의 만주로의 도피, 강모와 강실이와의 근친상간, 춘복이의 강실이의 강간, 강실이의 피신, 중간 중간 끼어드는 풍속이나 신화 이야기, 액막이 연 이야기 등, 대부분의 이야기는 일본 제국주의 하의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이다. 최명희가 설정한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민족의 암울한 상황은 단지 민족적인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 상징성만을 가질 뿐 구체적인 현실로서의 의미는 없다. 최명희는 그 시기를 단군 신화의 웅녀가 어두운 굴에서 지내야 했던 시기이며 자신이 글쓰기를 계속하던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로 상징하고 있다. 『혼불』에서는 이 시기를 미친개에게 물린 것처럼 인내하면 언젠가는 새로운 광명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다. 두 작품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강제 합병하는 어려운 시기에 대처하는 방법과 인식은 다르다.

『혼불』에서는 인간에게 부여된 천재나 재앙은 인력이 지극하면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회적 환경이나 역사적 환경은 별 의미가 없다. 청암 부인이 한일합방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다, 망했다 하지만, 내가 망하지 않는 한 결코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한 말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혼불』의 중요 사건들, 청암부인의 죽음이나 강모의 결혼, 강모의 고독과 외로움, 강실이의 불행, 궁극적으로는 매안 이씨의 멸망이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사회 역사적 환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라는 현실을 무시한 채 강모나 강실이 등이 개인의 수동적 정념에 빠져드는 것은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에의 예속을 인정하는 것이고 개인들의 자연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즉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큰 집단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에 순응하는 것이다. 이런 존재들은 정치적 역동성과 개인의 혁명의 능력을 애초부터 박탈당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혼불』의 중요 사건들은 궁극적으로는 매안 이씨의 멸망이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사회 역사적 상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 주체들, 강모, 강실이 등에 의한 것이다. 작품 속의 인물들의 슬픔



으로 인한 인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 자신이 놓인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 능력을 잃어버린 무능력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결혼식날 시작된 강모의 방황이나 보름날 달의 정기를 흡입하려다 춘복이에 의한 강실의 강간당함은 외부적 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두 인물의 무능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슬픔이 주는 무지 속에서 맹목적으로 양반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내에 의존하는 것이다. 강모는 자신이 놓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강실이와 대화의 노력조차 않는 인물이다. 이처럼 수동적인 정념에 휩싸인 채 자신의 삶을 내던지다 시피하는 『혼불』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현실을 향하여 자신이 무엇을 해야할지 파악할 능력이 부족한 인물들이라 외부적 힘에 의해 지배되면서 내면적인 힘, 인내밖에 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 인내도 운명에 맡기면서 막연한 빛을 기대하는 것이다.

『혼불』에서는 현실 세계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어려운 암담한 상황임을 전제하고, 그것을 이겨 낼 수 있는 내면적 힘에 의미를 부여한다. 내면적 힘에 의한 오직 인내로만 현실을 견뎌내는 힘을 드러낸다.<sup>6</sup> 『혼불』에서 인간에게 부여된 천재(天災)나 재앙은 인력이 지극하면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회적 환경이나 역사적 환경은 별 의미가 없다. 『혼불』 작가의 서술태도는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려는 서술태도보다는 작가의식을 상징적 이미지나 회상적 분위기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것이다.

서사와 서정 소설의 미적 태도의 차이는 객관적 현실에 주체가 종속되느냐, 혹은 객관적 현실을 주체의 내면 세계로 끌어들여 내면화하느냐의 차이이다. 서정 소설이 의식의 흐름이나 내적 독백과 같은 모더니즘 소설과의 미학적 연관성을 가지는 것도 이러한 미적 태도에 의한 것이다.<sup>7</sup>

### 3 『토지』와 『혼불』 두 작품의 서사 전개 과정

『토지』에서 최참관 댁의 몰락과 흥망은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역사적 사회적

---

6 나병철, 「소설이란 무엇인가」, 『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4, 340-349쪽.

7 Ralph Freedom, *The Lyrical Novel*, Princeton University Press, 1871, p.8.

인 상황에 의해서 매개되어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전개된다. 1,2부의 인물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의해서 한을 만들기도 하지만 정치적 격변이라는 사회적 상황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기도 한다. 3,4,5부에 와서는 서희라는 인물에 의해서 최참판댁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서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 계층이 만들어내는 인간사가 펼쳐지면서 결국 서희가 길상이와 결혼함으로써 민족의 독립으로 서사의 방향이 전환된다. 그에 따라 서희는 간도에서 진주로 오고 독립군으로 남은 길상의 뒷바라지와 독립군 가족의 뒷바라지를 장연학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일일이 돌보는 역할을 함으로써 능동적 공동체로의 민족 세우기로 진입한다.

『토지』는 1부에서 5부까지 하동에서 간도, 연해주, 간도에서 진주, 하동, 서울 등 장소의 이동에 따라 인물군들이 많이 달라진다. 그 인물군들은 일본제국주의라는 객관적 상황과 초기 자본주의 시장의 전개 양상에 의해서 개인의 삶이 규정된다. 또한 개인의 성격에 의한 왜곡 독단의 삶이 전개되기도 한다. 『토지』에서는 인물의 성격과 현실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서사가 진행된다.

『토지』 1,2부에서 전염병으로 윤씨 부인이 죽자 조준구는 일제의 권력을 업고 최참판댁 재산을 갈취하고 기세등등하게 어린 서희를 압박한다. 김훈장이 목수 윤보와 협력하여 최참판댁 집에서 부리던 하인 등속과 소작 농민 등을 선동하여 조준구의 횡포에 대한 최참판댁에서 조준구를 몰아내려다, 오히려 그 중 몇 명은 일경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다. 이에 서희와 같이 했던 이웃들은 힘을 합쳐 모의, 평사리를 떠나 간도로의 탈출을 결단하고 실행에 옮긴다. 김훈장과 목수 윤보 등 동네 사람들과 힘을 합침은 서희에게 혼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그들과 자신과의 공동체 의식 속에서 자유롭고 강한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나며 능동적인 인간으로 변모시킨다.

1,2부에서는 최참판댁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었다면 3,4,5부에서는 역사적 변혁기의 첨예하게 대립되는 힘들이 민족적인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그런 힘들에 의해서 민중의 삶이 어떤 변화 과정을 겪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3·1운동, 형평사 운동, 물산장려 운동, 그리고 의열단 사건이나 계명회 사건 등, 그 당대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역사적 장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구체화 실현을 통해서 드러나는 인간의 다양한 욕망들이 어떻게 부딪치고 좌절되어 나가는가를

보여준다. 『토지』는 일본제국주의라고 하는 구체적 현실을 작품 속에 매개해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인물들의 삶이 역사적 정황에 의해서 규정된다.

서희를 온전히 간도로 탈출시키기 위해 봉순이를 서희 대신 희생양으로 서희 가마에 태우고 죽음을 무릎 쓴 간도를 떠날 때는 절제 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다. 이 때 서희는 줄지에 혈연 한 명 없는 고아로서의 고독과 슬픔을 벗어나 그들을 의지하고 싶은 따뜻한 혈육과 같은 정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서희가 나중 봉순이 딸 양현이를 친딸처럼 사랑했고, 자신의 아들 윤국이와 결혼시키려 한 것도 봉순이의 이런 희생에 대한 감동 때문이었을 것이다. 서희 자신을 감싸는 따뜻한 정은 만주에서 월선이의 삼촌 공노인을 통해서도 똑같이 느꼈을 것이다. 만주에의 정착에서 최침판덕 재산을 찾는 모든 과정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도운 공노인에게도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서희의 월선과 용이에 대한 지극 정성은 그에 대한 감동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서희는 그들의 따뜻한 정에 힘입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서희가 소녀적 자연 상태의 고집스럽고 안하무인인 인간에서 벗어나 이웃들과 함께 하는 신뢰 관계 즉 사회적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서희는 자신이 가장 좋은 상태 자신의 이익이 이웃들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욕망인 코나투스를 유지할 수 있는 삶, 민족의 길을 가기로 한 것이다. 자기 이익의 추구, 최침판덕을 일으킨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도 유덕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더불어 하는 민족 독립운동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서희가 간도에서 능동적으로 변화한 이유이다. 이것은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작품의 독자성과 작가의식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한 문학의 승리이다. 엥겔스는 발자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다 보니 왕당파가 가지고 있는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객관적 관점을 확보, 세계문학사에서 ‘리얼리즘의 승리’라고 인용되는 사건과 같은 것이다.<sup>8</sup>

이와같이 『토지』가 당대의 구체적 일상을 통해서 총체적 시대를 반영하려는 목표로 서사진행을 한다면 『혼불』은 정서적 극대화를 통해 인간 영혼의 내면적

---

8 신재기, 「1930년대 비평에서 ‘엥겔스의 발자크론 수용 양상」, 『어문논총』 제28권,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4, 95-110쪽.

고양에 서사적 목표를 두고 있다. 『혼불』의 청암부인의 대장부적인 면모가 매안 이씨 가문을 세운다는 의미 이상을 넘지 못하고 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대전제 앞에 단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는 한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내면의 강고함을 통한 인내의 미덕을 부르짖는다.

『혼불』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강모, 강실이, 효원이 중심으로 한 인과적 계기에 의해서 제시되는 서사 중심의 이야기가 중단된 채 중간 중간 끼어드는 장면들이다. 단군 신화, 백제 역사, 사천왕 이야기, 전주 지방과 남원의 역사 이야기, 액막이 연 만들기 등등의 불연속적 장면들이다. 이것은 시간의 연속을 전제하는 화자의 서술보다는 서정 소설의 특성인 공간을 통하여 화자의 인식을 시각화하려는 특성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언어의 시각화와 이미지화, 비유, 등에 의해 더 부각된다.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최악의 상태가, 사실은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태어나는 모태가 된다’는 작가의 자기의식이 외면적 관조의 세계로 관습적 풍속, 과거의 역사, 신화, 제례, 자연, 사물을 통하여 표현된다. 이런 인과적, 계기적 통사론의 연속성을 파기하는 단어군의 병치, 시각적 이미지의 서술, 반복적인 단어나 어구의 사용 등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연속을 공간으로 표현하는 문체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서정 소설이 자아와 세계가 즉자적으로 융합한 ‘순간의 상태성’을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상징, 은유, 이미지와 같은 언어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sup>9</sup>

『혼불』의 서술의도는, 상징과 이미지, 역사적 인물, 서사 전개, 세 가지 통로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제시된다. 가장 대표적 이미지로 사천왕 이야기와 연 만들기가 상징적으로 제시된다. 모든 서술 방향이 강실에게 맞춰져 있다. 즉 역사적 인물, 단군부터 유자광, 선화 공주 이야기 등 무수한 역사적 예화들이 강실이와 춘복이에게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또한 집안 간의 갈등, 효원과 강실이의 갈등, 강모와 효원의 갈등, 춘복이와 옹구네의 갈등 등 대부분의 갈등의 중심에 강실이가 놓여있다. 그렇다면 초점인물은 강실이가 되며 서술방향도 강실이와 관련된 내

9 이덕화, 「최명희의 문학 세계」, 『박경리와 최명희, 두 여성적 글쓰기』, 태학사, 2000, 272-275쪽.

용이 될 것이다.<sup>10</sup>

#### 4 ‘나’의 근원 찾기와 능동적 공동체로서의 민족

『토지』의 서희가 자신의 고집대로 현실을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인물이라면 강실이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촌인 강모로부터 또 거명굴 상놈 춘복에게 강간을 당할 때도 대책없이 당하는 수동적인 인물이다. 제1권에서 10권까지 열 마디 말도 채 하지 않는 침묵과 인내로 일관하는 인물이다. 대부분의 서술이 하인들의 입을 통해 혹은 옹구네의 수다로 강실이의 근황이 제시된다. 또 강모나 강실이의 의식을 통해서 제시될 뿐이다. 또 역사적 예화와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반복해서 강실이의 존재에 대해서 제시한다.

그 애 녹은 자리의 쓰라린 공동(空洞), 이 상실과 상처와 상심이 버린 가슴은 오히려, 해 같고 달 같은 꼭지로 물들어서, 한숨과 눈물의 풀로 한생애의 이마에 곱게 붙여질 것인가.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비어버린 것의 힘으로 가벼이 되며, 또 비어버린 것의 힘으로 강하게 되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도 있을 것인가.<sup>11</sup>

위의 인용문은 강실이 수많은 상실과 상실을 통해 비워버린 가슴, 중간에 구멍을 뚫어, 비어버린 힘으로 가벼이 훨훨 하늘을 나는 연(鳶)처럼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연(鳶)의 이미지를 이용,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강실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높으로 던져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부숴 버린 다음, 새로운 제2의 강실이를 탄생시 키고자 하는 서술의도를 통하여 죽

10 김경원, 「근원에 대한 그리움으로 타는 작업」, 『실천문학』 제46호, 실천문학사, 1997 여름. 김경원은 이 글에서 『혼불』에는 대하를 형성하는 웅대한 흐름, 통시성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혼불』은 자신의 뿌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은 독자에게 자극을 주고, 서정적이고 감상성이 강한 매혹된 문체로 독자를 매혹한다고 했다.

11 최명희, 『혼불』 제3부 5권, 한길사, 1996, 232쪽.

음의 지경에 몰아넣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이런 강실이와 같은 인물을 수동의 정념에 사로잡혀 있는 자라고 정의를 내린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욕망은 ‘자신에 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욕구’<sup>12</sup>라고 말할 때 강실이는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과 자신의 감정 상태가 혼란스러울 뿐 자신이 어떤지 정확하게 모른다. 즉 춘복이의 강간을 당했을 때 자신의 신체에 대한 좋음과 나쁨을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춘복이와의 신체적 결합이 자신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을 미룬다. 단지 인내를 통하여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운명을 기다릴 뿐이다. 아무런 관계 아래서 누구에게나 당하는 맹목적이고 수동적인 강실이의 감정, 인내라는 것이 자신의 객관적 상황판단을 막고 자신의 감정을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없게 한다. 인내, 그리고 흐르는 시간이라는 고착된 상태에서 벗어나할 수 없게 하고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정념에 사로잡힐수록 정신의 능력, 정신의 활기는 감소, 무생물처럼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다. ‘인내하면 언젠가…’라는 양반의식은 당위가 되어 복종 이외의 어떠한 것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이에 놀란 공배네는 강실이를 짐보따리 빼앗듯 잡아챘다.

마치 사람 하나를 찢으려고 돌이서 덤벼드는 아귀들 같았다.

그 바람에 웃고름이 풀어져 버린 강실이가 망연자실, 몸을 뜯기며 당황한 눈빛으로

허공을 움켜잡는다.

나를 놓아 주시오….

강실이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sup>13</sup>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거머굴의 천박한 옹구네와 공배네가 자기네들의 상전과 같은 강실이를 서로 갈취하기 위해 사물 취급하는데도 강실이는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입속으로만 ‘나를 놓아주시오…’라고 외칠 뿐이다. 이것은 옹구네

---

12 질 들뢰즈, 박기순 역, 『스피노자의 철학』, 민음사, 2018, 36쪽.

13 최명희, 『혼불』 제5부 10권, 한길사, 1996, 317쪽.

가 춘복이와의 내연의 관계에 있는 힘을 믿고 강실을 납치, 자신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위협에 빠뜨린다. 자신이 살았던 전혀 다른 환경에서 옹구네의 구박을 받으면서 강실이는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또 이 슬픔이 어디에서 오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 오직 인내의 시간만을 견뎌고 있을 뿐이다. 단지 자신이 춘복이에게 강간을 당해서 춘복이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이 혼란스러울 뿐이다. 그 혼란 속에서 주위 매안의 집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만을 바라는 양반 의식(이것은 작가의식이지만)에 의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을 뿐이다. 사건의 원인과 자신의 진정한 욕망(코나투스)이 무엇인지에 대한 무지로 인한 노예의 상태에 머무르는 불행한 인물이다.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이론을 이어받은 니체의 권력의지는 인간의 내부에 여러 욕망들 가운데 수동적인 것들은 고립시키고 무의식 속에서 적극적 힘을 끌어내어 능동적인 것으로 전환, 새로운 생동하는 힘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 극복이며 능동적인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칸트의 코키토에서 능동적 주체(나)는 오로지 수동적 주체(자아)의 변용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타자이다. 화자는 무의식적 주체가 능동적으로 이루어내는 작업을 통해 또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혼불』의 강모나 강실이는 자신들의 올바른 관계 설정, 자신들의 진정한 욕망, 현재 놓인 상황에 대한 반성의 과정을 거쳐 자신들의 새로운 욕망을 끌어올려야 함에도 그 내부의 무의식적 힘들을 작가의 관념인 인내라는 것에 의해 새로운 욕망은 되돌아오지 못한다. 작가의 관념 속에서만 큰 어려운 난관을 거치다보면 인간의 본원적인 정신이 고양될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다.

『토지』에서 윤씨부인이 죽고 서희는 조준구로부터 모든 재산을 찬탈당하고, 간도로 탈출할 때는 모든 그동안의 기반은 다 잃고 오직 윤씨 할머니가 남기고 간 금괴와 김훈장을 비롯한 자신의 집에서 소작인을 지냈던 용이, 영팔이, 그리고 길상이 등이 옆에 있었을 뿐이었다. 김훈장, 이상현을 빼고는 대부분이 소작인 하인이었다. 김훈장과 이상현과도 길상과의 결혼 문제로 다툰 이후 모두 떠나갔다. 서희가 그 이후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은 그들이었다. 길상이, 공노인 등, 자신의 가족이 아닌 다른 민초에 토대를 둔 사람들이었다.

서희가 간도에 와서 그들과의 간극없는 생활은 길상과의 관계에서도 평사리

에 있을 때에서 대하던 주인과 하인과의 관계는 많이 희석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례로 간도 대화재 사건으로 간도 전체가 황폐화된 시점에 서희가 길상이보고 목재를 많이 들여 와 대화재 피해자들에게 목재를 팔아 돈을 벌려는 것을 보고, 길상이 서희에게 ‘불쌍한 사람들 상대로 장사 같은 것은 하지말라’고 서희에게 따끔하게 충고하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서희와 길상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익이 서로 같아 자신의 이익이 바로 상대방의 이익이 되며 민족공동체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선택한 결혼이었다.

바로 가족과 같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는 사회 그것이 결국 민족으로 이어지며 그들이 같은 생각임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간도에서 서희가 진주로 내려 올 때 길상은 독립운동 진영으로 떠났다. 이것은 민족의 모든 구성원이 노력하며 이루어나가야 하는 능동적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단계이다. 서희가 진주로 돌아온 후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독립운동 가족을 도우는 일을 장연학을 통해서 대리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 3,4,5부의 서사의 중요한 인물로 장연학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가족과 같은 사랑으로 민족을 돌보자는 길상과 서희의식의 반영이다.

서희와 길상이 가족이면서 서로 서로의 자유로운 선택은 두 사람의 공동선에 대한 일치가 가능한 곳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스피노자는 말한다.<sup>14</sup> 스피노자는 타인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타인과 함께 있어도 자신의 본성과 타인의 본성과 동일하게 발휘되어 서로에게 제약이 되지 않는 그런 자유를 말하고 그것이 바로 인간 고유의 생명 의식을 전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활동이 곧 개개인의 활동이 되고 나의 본성이자 타인의 본성이 되는 상태가 되면 타인의 삶이 나의 삶이고, 나의 삶이 타인의 삶의 되는 경지에 도달해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 같아도 실상 그것은 자신만의 온전한 능력의 발휘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박경리가 말한 유기체 존재론과 일맥상통한 의식이다.

스피노자에게서 ‘개체들의 구성과 활동은 원초적으로 다른 개체들과의 관계를 함축’하며 ‘처음부터 모든 개체는 자신의 형태와 실존을 보존하

---

14 이수영, 앞의 책, 338쪽.



기 위해 다른 개체를 요구한다.’ 능동의 조건이자 이성의 조건은 홀로 선 개인이나 고독한 개인이 아니라 함께 기쁨을 위해 만남을 조종하는 삶, 공동체적인 삶에 있다는 것. 자유, 그것은 오직 공동체에만 피어나는 아름다운 열매이다.<sup>15</sup>

(…)순진무구, 그 때 일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사람에게 대한 깊은 신뢰와 우리 민족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뼈에 사무치는 한을 느낍니다. 아저씨의 외로움은 늘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잘 웃고 만사를 익살로 넘기던 그분이 왜 그렇게 서러워 보이든지요. 다만 수줍어할 때만 우스웠습니다.

“.....”

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같았고 형님 같았고 친구 같이 임의롭고 언제나 감싸주는 고향 같았습니다....<sup>16</sup>

위쪽 인용문에서는 스피노자가 개념적으로 설명한 공동체는 아래의 인용문『토지』의 대화체로 보여준 민족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거의 똑같은 내용을 문체만 다를 뿐이다. 아래 인용문은 만주에서 송장환과 흥이의 대화중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주갑이를 회상하며 흥이가 한 말이다. 이 인용문에서 작가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바로 인간에 대한 향수이며 이것은 바로 고향으로 이어지며 민족에 대한 신뢰까지 확대됨을 보여준다. 『토지』에 후반부에 와서는 이웃으로 시작해서 생명공동체로 보는 민족으로까지 확대되며 생명력을 가진 능동적 공동체로 바뀐다.

박경리가 니체에 관해 실제 『토지』 후반부 거의 한 페이지 이상 니체의 이념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의 아픔』이라는 수필집에는 유독 ‘능동’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스피노자의 철학을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비슷한 문장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그러다 우연히

15 위의 책, 313쪽.

16 박경리, 『토지』 16권, 마로니에 북스, 2012, 26-27쪽.

『토지』의 후반부 스피노자의 철학 개념어인 ‘능동적 공동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발견했다.

“그렇지요. 생명. 모든 생명은 존재하고 운동하는 한에 있어서 의지가 있다 할 수 있겠지요. 풀잎 하나에도.”

“그렇다면 역사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면 지배하는 건가?”

“능동적인 공동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흠”

“다시 말하면 상부상조의 관계라 할까요. 생명체끼리의.”<sup>17</sup>

『토지』에서 동학운동에서 의병 활동, 만주에서의 갖가지의 독립운동이 제시되는 것은 능동적인 역사, 우리 것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 민족사의 배경으로 서술되고 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다스리는 일은 돈 있고 더 힘있는 자들이, 일본제국주의의 침탈로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고루 죽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제로부터 벗어날 때까지라도 버티고 살아남도록 도와야 함을 서희나 장연학을 통해 이루어낸다.<sup>18</sup>

스피노자는 자신의 코나투스(欲)를 유지하기 위한 삶은 바로 자연적인 삶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태는 우리의 이익이 타인의 이익이 되는 상태 즉 ‘본성에 있어 일치’하는 상태이다. 이런 상태는 우리가 문학에서 서사시의 시대, 즉 개인의 생각이 공동체 의식과 일치되는 유토피아적 상태이다. 이것은 기쁨은 슬픔과 동일하게 수동으로 분류되지만 그럼에도 슬픔에는 없는 기쁨만의 본성이 있으니 바로 완전성의 증가 덕분에 생겨난다는 것이다.

박경리는 해방이 된 시점 연합군에 의해서 저절로 얻어진 해방이 아니라 실제 만주를 비롯한 연해주 지방에서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다 총칼에 쓰러진 독립군들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최선을 다해 얻은 독립으로 조명하고 싶은 의지의

17 박경리, 『토지』 13권, 마로니에 북스, 2012, 386쪽.

18 이덕화, 「토지, 가족 서사의 확대, 능동적 공동체 만들기」, 『여성문학연구』 제3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191쪽.

발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위의 인용문의 ‘감나무 밑에서 절로 드러누워 입 벌리고 살아가는’ 소극적인 민족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민족으로 조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인간 개개인은 자신의 소유주 속에서 각 개체로서 자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하나의 공통된 목적, 민족 해방이라는 지향점을 향한 욕망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민족 해방이라는 공동체에 의해 증가된 기쁨이면서 자신의 기쁨을 배가시키는 감정이다. 이런 기쁨으로 인해 상호 호의적인 관계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 진실한 것, 선한 것—이러한 것을 사랑 속에서 찾고자 하고 예술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내 아닌 또 하나의 나를 이상화하고 갈망했던 나를 발견코자 하는 처절한 행위인 것이다.<sup>19</sup>

위의 인용문에서 박경리가 말한 ‘아름다운 것, 진실한 것, 선한 것’은 스피노자의 철학을 통하여 해석하자면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쁨은 축적될수록 적합한 관념, 이성적 인식의 기회를 형성하도록 정신에 촉구하는 능력을 갖는다. 또 위의 사랑이라는 것도 다른 신체와의 만남에서 오는 역량의 증가에서 오는 기쁨에 의한 것이다.

들뢰즈의 말에 의하면 서희와 같은 자유롭고 강한 인간은 자신의 기쁨 정념들로 그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강실이 같은 약자는 그들의 슬픈 정념들로 그들의 활동 능력을 감소시키는 슬픔이 주조가 된다고 했다.<sup>20</sup>

## 5 결론

스피노자에 의하면 인간은 현실적으로 실존하게 되는 순간 코나투스적 존재라고 한다. 코나투스는 기쁨이나 슬픔이라는 촉발 장치를 필요로 한다. 스피노자의 코

---

19 박경리, 「낭만」, 『Q씨에게』, 지식산업사, 1981, 334쪽.

20 질 들뢰즈, 현영중·권순모 역, 『스피노자와 표현의 문제』, 인간사랑, 2004, 354-355쪽.

나투스에 의한 기쁨과 슬픔의 상태는 『토지』와 『혼불』의 생명력이 진행되는 방향과 일치한다. 『토지』는 기쁨의 방향으로 진행하고 『혼불』은 슬픔의 방향으로 진행한다.

스피노자는 능동의 경우에는 오직 기쁨의 감정과 그에 따른 능동적인 욕망만 존재한다고 했다. 기쁨에서 생겨난 욕망은 코나투스이기는 하지만 외부의 원인에 의해 증가된 완전성으로 인해 배가 된 욕망이라는 것이다. 서희가 간도에서 자신의 주체적인 아이디어로 길상이와 일체가 되어 재산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혀를 두를 정도로 용의주도하다. 간도로의 탈출부터 자신의 피붙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서희가 평사리 마을 사람들과 함께 떠날 때는 홀로 선 자신의 위기를 그들과 함께 극복해보겠다는 강한 의지 때문이다. 즉 처음부터 서희는 최참판댁의 영광을 되찾고 자신의 실존을 보존하기 위해 다른 이웃들과 함께 연대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서희라는 홀로 선 개인이 아니라 함께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한 김훈장이나 용이네, 공노인 등을 비롯한 이웃들과의 조화로운 삶은 서희가 최참판댁을 지켜야겠다는 최참판댁 가문 이상의 민족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염원으로 발전한다.

이에 비해 『혼불』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 강모와 효원의 결혼, 청암부인의 죽음, 강모의 만주로의 도피, 강모와 강실이와의 근친상간, 춘복이의 강실이의 강간, 강실이의 피신, 고리 배미의 천민인 백단이와 만동이 아버지의 뼈를 청암부인의 묘에 투장하는 사건 등 중간 중간 끼어드는 풍속이나 신화 이야기, 액막이 연 이야기, 백제 이야기, 만주 이민 역사 등, 대부분의 이야기는 도도한 작가 정신에 의해서 인물들의 삶을 규정하는 객관적 현실과 유리된 채 상징, 언어의 반복, 시각적 이미지인, 자연 제재물이나 사물에의 감정 이입, 모티브의 반복과 불연속적 사건들의 병치 등 ‘순간의 상태성’을 표현하는 수동적 정념에 휩싸인 인물만을 그려내고 있다. 작가 의식에 의해서 『혼불』이 전달하려는 것은 서사적 성격을 초월한 영원의 본질적 고양을 경험한다는 것은 오직 작가의 관념으로서의 발현이지 작품 속에서는 수동적이고 맹목적인 인물로만 드러날 뿐이다.

『혼불』의 강실이처럼 자신의 삶의 최고의 위기의 순간을 맞았음에도 슬픔도 분노도 아무런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실존을 유지하려는 의지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기쁨이나 슬픔, 혹은 분노는 외부 사물이나 사건에 의해서 유

발된 효과이지만 코나투스스는 그런 효과 속에서 자신의 실존을 유지하려는 현실적 발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강실이는 전혀 그런 감정의 발현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종교가 대중들을 죄속에 빠뜨려 놓고 맹목적으로 종교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런 것이 최명희가 『혼불』에서 추적했던 우리 민족의 근원, 힘없고 그래서 인내하고 때를 기다려야만 하는 근원인 ‘나’ 일지 모르지만, 너무 소극적이고 맹목적이다.

『토지』의 생명의식과 『혼불』의 ‘혼불’ 의식에서 말하는 생명력은 각 개인의 생명력이 마음껏 펼쳐나가 ‘나’에 대한 사랑이 살아있는 생명체 전체에 고루 퍼질 때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았다고 할 수 있다. 『토지』의 서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이웃으로 이웃에서 민족으로 퍼져 나감으로 생명체 전체에 대한 연민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혼불』의 효원이나 강실이는 인내를 미덕으로 삼는 양반의식에 갇혀 자신의 생명력을 불태우기 전에 운명의 회오라기에 갇혀버리는 인물들이다. 각기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즉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적 욕망을 불살할 때 바로 생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여성, 남성을 떠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능동적으로 삶을 살아야하는 이유이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박경리, 『토지』 1-20권, 마로니에 출판사, 2012.

최명희, 『혼불』 1-10권, 한길사, 1996.

### 단행본

나병철, 「소설이란 무엇인가」, 『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4, 340-349쪽.

박경리, 『Q씨에게』, 지식산업사, 1981, 334쪽.

———, 『문학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 현대문학사, 1955, 281-282쪽.

이덕화, 『박경리와 최명희, 두 여성적 글쓰기』, 태학사, 2000, 50-59쪽.

질 들뢰즈, 현영중·권순모 역 『스피노자와 표현의 문제』, 인간사랑, 2004, 354-355쪽.

\_\_\_\_\_, 박기순 역, 『스피노자의 철학』, 민음사, 2018, 31-47쪽.

M.S 까간, 진중권 역, 『미학강의 1』, 벼리, 1989, 220-250쪽.

Ralph Freedom, *The Lyrical Novel*, Princeton University Press, 1871, p.8.

## 논문

김경원, 「근원에 대한 그리움으로 타는 작업」, 『실천문학』 제46호, 실천문학사, 1997 여름, 34-56쪽.

이덕화, 「토지, 가족 서사의 확대, 능동적 공동체 만들기」, 『여성문학연구』 제 3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171-200쪽.

이수영, 「수동적 정념의 코나투스과 감정의 법칙」, 『스피노자 에티카』, 오월의 봄, 2017, 220-350쪽.

신재기, 「1930년대 비평에서 ‘엔겔스의 발자크론 수용 양상’」, 『어문논총』 제 28권,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4, 95-110쪽.

## Abstract

The active community in 『Toji』 and 『Honbul』 is revealed the root of me

Lee, Duk-hwa

According to Spinoza, The humanbing are reallistically Konatus's bing the moment of existence. The Konatus needs a trigger device be called joy and sorrow. The state of joy and sorrow by the Konatus of Spinoza is match with the direction in which The life force from 『Toji』 and 『Honbul』 progress to.

In 『Toji』 1,2 part, From Mrs. yoon's death by infection disease to SeoHee's Gan-do escape is a stage of sadness, a downward structure. Seo-hee already was not the girl from the time of Pyeong-sa-ri as she escaped to Gan-do. Since then, seo had not been an individual standing alone. Sea-hee had been cooperating with Kim hoon jang and youg-yi, Gil-sang, Gong aged man, extra who shared difficulties and joy. Through this, Seo-hee had a dream for the community of nation rather her family desire. Seo-hee is transformed into a person who actively leads her life. It was the desire of the great active community of the nation that led to the sctupulous active life on Gando.

By comparison, a series of events taking place in 『Honbul』, Kang-mo and Hy-

eo-won's marriage, Mrs. Chong-am's death, Kang-mo's escape to Manju, Kang-mo and Kang-sil's incest, Chun-bok's Kang-sil rape, Kang-sil's escape, extra, a story of a custom or myth that interrupts from time to time. The story of kite against evil influence, Baekje's history, Korean Manju immigration history extra. Most of the stories depict only those who are surrounded by passive spirit. By Symbol, The repetition of language, the introduction of emotions into natural objects, which are visual images, the juxtaposition of motifs and discontinuities it only reveals the state of the character at the moment separated from the objective reality that define the lives of characters by the haughty spirit. What the writer is trying to convey is an essential experience of eternity beyond narrative character. This is only the manifestation of the writer's conception, which is only revealed as passive and blind figures.

Key words: Konatus, The active community. The passive spirit, the rescue of nation, The essential elevation

본 논문은 2020년 7월 23일에 접수되어 2020년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0년 8월 2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